

셀트리온 068270

홍콩 기업설명회 후기: It's Hong Kong

홍콩 기업설명회 주요 안건 3가지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은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콩에서 기업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주요 안건 3가지는 (1) 염증성장질환(IBD) 관련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 전략, (2) CDMO 사업 확대 추진, (3) 주주가치 제고 계획 발표 이었다.

CDMO 확대 추진 및 주주가치제고

거듭된 고객사의 요청과 생물보안법 입법화에 따른 대내외 업황변화에 따라 CDMO 사업 출범을 발표하였다. 약 1조 5천억원을 투자하여 20만 리터 공장을 국내에 건설할 예정이다.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CD(M)O 사업을 추진하여 1만리터당 1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5년 착공하여 '28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로 연내 자사주 약 25%를 소각할 계획으로 주주가치제고에도 힘쓸 것으로 밝혔다.

바이오벤테터/IBD 전문 개발사, 신약개발 방향성 확립

이때까지의 셀트리온 신약 개발 전략이 ADC 등의 새로운 영역으로의 도전이었다면 이번 IBD 신약 개발 전략은 강점을 가장 잘 활용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1) 신약 짐펜트라를 기반으로 타 생물학적제제를 혼합한 단일 주사제 및 (2) 마이크로니들캡슐을 활용하여 경구용 휴미라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IBD 최신 트렌드에 매우 걸맞으며 성공 가능성도 높아 향후 IBD 전문 신약개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두 품목 모두 \$5bn 이상 매출이 기대되며 짐펜트라 영업망을 활용할 경우 영업레버리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셀트리온 대형주 Toppick 유지

합병 후 실적개선에도 불구하고 짐펜트라 매출 불확실성으로 주가는 평행선을 그렸다. 이번 간담회에서 CDMO 사업을 통해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었으며 동사의 강점을 바탕으로 하여 IBD 신약 개발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였다. EBITDA의 약 30%를 현금배당하며 연 내 약 5,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을 밝히는 등 주주가치제고에도 힘쓰는 셀트리온을 대형주 Top pick으로 추천한다.

Financial Data

(십억원)	2021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1,893	2,284	2,176	3,505	4,440
영업이익	744	647	651	591	1,684
영업이익률(%)	39.3	28.3	29.9	16.9	37.9
세전이익	739	626	671	690	1,811
지배주주지분순이익	579	538	536	658	1,761
EPS(원)	3,964	3,676	2,465	3,059	8,191
증감률(%)	11.7	-7.3	-32.9	24.1	167.7
ROE(%)	16.0	13.4	5.1	3.8	9.6
PER(배)	48.1	43.7	81.7	58.1	21.7
PBR(배)	6.7	5.5	2.6	2.2	2.0
EV/EBITDA(배)	28.0	26.1	50.7	22.6	12.8

자료: 셀트리온,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IFRS 연결기준

김민정 제약·바이오

02-709-2656

kim.min_jeong@ds-sec.co.kr

강태호 RA

02-709-2666

kth@ds-sec.co.kr

2024.11.28

매수(유지)

목표주가(유지)	260,000원
현재주가(11/27)	177,800원
상승여력	4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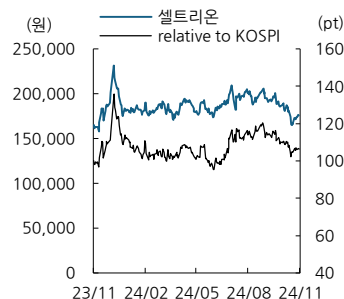
Stock Data

KOSPI	2,503.1pt
시가총액(보통주)	38,597십억원
발행주식수	217,079천주
액면가	1,000원
자본금	220십억원
60일 평균거래량	563천주
60일 평균거래대금	106,185백만원
외국인 지분율	22.8%
52주 최고가	241,000원
52주 최저가	157,500원
주요주주	
셀트리온홀딩스(외 89인)	28.3%
국민연금공단(외 1인)	6.2%

주가추이 및 상대강도

(%)	절대수익률	상대수익률
1M	-4.6	-1.5
3M	-11.3	-4.4
6M	-1.0	7.1

주가차트



1. CDMO 사업 추진

실적 가시성에 주어지는 주가 Turning point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은 11월 27일 오후 4시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콩에서 기업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주요 안건 3가지는 (1) 염증성장질환(IBM, Inflammatory Bowel Disease) 관련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 전략, (2) CDMO 사업 확대 추진, (3) 주 주가치 제고 계획 발표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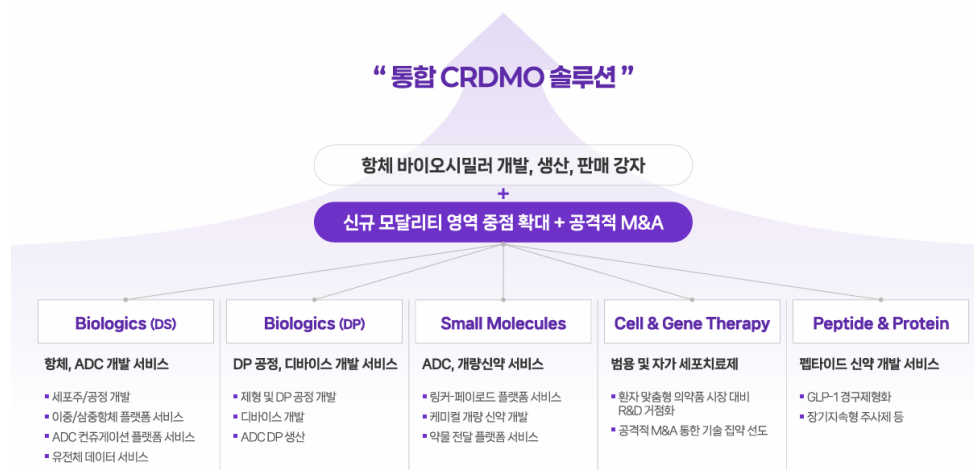
CDMO 사업 출범

그 중 가장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던 분야는 CDMO 였다. 셀트리온은 2002년 아시아 최초로 CDMO 사업을 시작한 회사로 BMS, Sanofi, Teva 등의 고객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track record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까지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집중하였으나 꾸준히 고객사의 CDMO 서비스 요청이 있어왔으며 생물보안법 입법화 이슈로 대내외 환경이 보다 우호적으로 변화한 점에 착안하여 셀트리온은 CDMO 사업을 출범할 것으로 밝혔다.

실적 가시성이 높은 비지니스로 훌륭한 cash cow 전망

CDMO 사업은 수주가 원활하다면 capacity에 따른 실적 가시성이 매우 높은 비즈니스로 신약개발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셀트리온에게 훌륭한 cash cow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셀트리온은 기 보유한 바이오시밀러 세포주 개발 능력 및 ADC 플랫폼, 다중항체 플랫폼, DDS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1만리터 당 1천억원 수준의 단가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밝혔다. 공장은 신속한 건설을 위하여 국내에 건설할 예정이며 규모는 약 20만리터에 달한다. 그 중 10만리터는 즉시 착공할 예정으로 '25년 내 착공하여 '2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1 셀트리온 CDMO 사업 전략



자료: 셀트리온,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바이오베터/IBD 전문 개발사, 신약개발 방향성 확립

셀트리온의 강점을 심분 활용하는 개발 전략

IBD에서 가장 필요한 약물 개발 + 영업레버리지 효과 극대화

셀트리온의 강점을 가장 잘 활용하는 신약개발전략

셀트리온은 염증성장질환(IBD, Inflammatory Bowel Disease) 관련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때까지의 셀트리온의 신약 개발 전략이 ADC 등의 새로운 영역으로의 도전이었다면 이번 IBD 신약 파이프라인 전략은 셀트리온의 강점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안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셀트리온은 짐펜트라 개발에 성공하는 등 약물 전달 방식 개량을 통해 약물의 가치를 제고하는 분야에서 뛰어난 저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짐펜트라를 통해 IBD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 셀트리온의 IBD 신약 파이프라인 전략은 총 2가지로 (1) 짐펜트라를 활용하여 타 IBD 항체 의약품과 혼합한 각테일 제형의 단일 주사제 개발 및 (2) Rani therapeutics의 마이크로니들캡슐 기술을 활용한 경구용 휴미라 등의 개발로 셀트리온의 강점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각테일 주사제:
IBD 최신 개발 트렌드에
가장 걸맞는 신약

각테일 제형의 단일 주사제는 IBD 최신 트렌드에 가장 걸맞는 신약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까지 IBD는 생물학적제제를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권고되고 있으나 최근 IBD에서 단일 생물학적제제로 치료제 실패하였거나 치료가 어려운 장외증상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DBT(이중 생물학적 제제, Dual biologics therapy)를 투여하였을 경우 우월한 효능이 하나씩 입증되고 있다. 중증의 궤양성대장염을 대상으로 TNF- α inh와 Guselkumab(IL-23 inh)를 병용투여 한 임상 2상에서 DBT의 83%가 임상적 반응을 보인 반면 단독요법은 각각 61% 및 75%의 임상적 반응을 보였다.

경구용 휴미라/스텔라라:
임상 1상에서 약 84%의
생체이용률 확인
→ 성공가능성 매우 높음

Rani therapeutics의 기술을 활용한 경구용 휴미라/스텔라라의 경우 기 발표된 자료로 판단하건대 개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한다. DDW2024에서 경구용 스텔라라 RT-111 임상 1상에서 이미 SC 대비 약 84%의 높은 생체이용률을 달성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제형변경의 핵심은 PK/PD data로 임상 1상의 결과만으로 경구용 휴미라/스텔라라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함에 무리가 없다.

짐펜트라 영업망 활용,
영업레버리지 효과 극대화

향후 셀트리온의 2가지 약물이 출시된다면 짐펜트라 판매를 위해 IBD에서 구축한 탄탄한 영업망을 활용하여 영업 레버리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진정한 신약개발기업으로 거듭나고있는 셀트리온을 최선호주로 추천한다.

(1) 콕테일 혼합 주사제: IBD 최신 개발 트렌드에 가장 걸맞는 신약

셀트리온은 올해 4월 런칭한 신약 짐펜트라를 기반으로 IL-23 inh인 Guselkumab/Risankizumab 혹은 인테그린 저해제 Vedolizumab을 혼합한 단일 콕테일 주사제를 개발할 계획으로 밝혔다. 이러한 콕테일 주사제는 IBD 최신 개발 트렌드에 가장 걸맞는 신약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중증 IBD:

두 가지 생물학적제제 병용 투여가 보편화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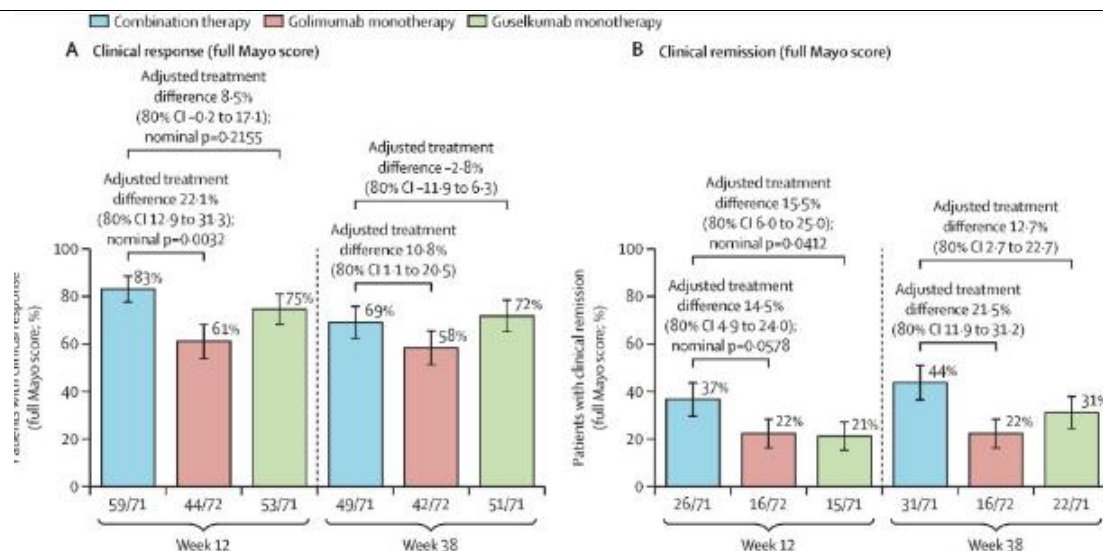
현재까지 IBD guideline은 생물학적제제를 단독으로 투여하거나 혹은 면역조절제와 병용 투여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장외 증상을 호소하여 최근 몇 년 동안 중증의 IBD 환자에 대하여 두 가지 생물학적제제를 동시에 투여(*DBT, Dual biologics therapy)하는 소규모 임상시험이 개시되었으며 우수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증 IBD 환자에서는 두 가지 생물학적제제를 병용 투여하는 치료가 보편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Golimumab+Guselkumab 병용투여 효능 입증

;Golimumab은 IV로 투약 편의성이 낮음

중증의 궤양성대장염을 대상으로 TNF- α 저해제 Golimumab과 IL-23 저해제 Guselkumab를 각각의 약물을 따로 투여하는 단독요법 대비 병용요법(*DBT)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이중맹검 임상 2상에서 DBT의 83%가 임상적 반응을 보인 반면 단독요법은 각각 61% 및 75%의 임상적 반응을 보였다. 임상적 관해 역시 병용요법에서 약 37% 달성하는 반면 단독요법은 각각 22%, 21%를 달성하는 등 병용요법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Golimumab은 IV 제형으로 Guselkumab과 병용투여하기에 투약 편의성이 떨어진다. 셀트리온은 SC 제형 TNF- α 저해제 짐펜트라와 IL-23 저해제 Guselkumab를 혼합하여 단일 콕테일 주사제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림2 두가지 생물학적 제제 병용요법의 우월성 확인



자료: Feagan et al 2023,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구용 휴미라, \$5bn 이상 매출 기대

셀트리온은 Rani therapeutics의 마이크로니들캡슐 기술을 활용하여 경구용 휴미라/스텔라라 등을 개발할 예정으로 밝혔다. 이러한 Rani-Phill의 개발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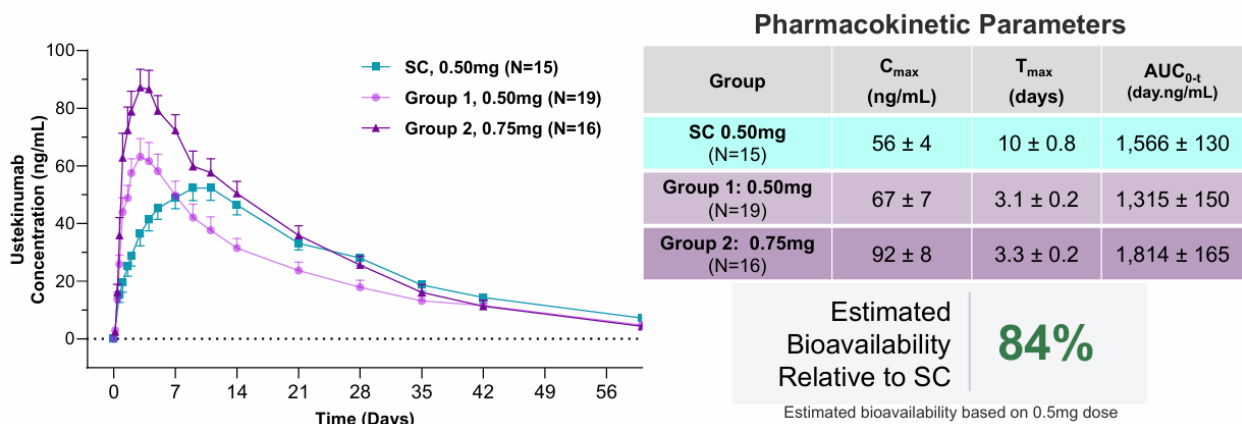
Rani Phill 임상 1상
생체이용률 84% 달성
→ 성공가능성 매우 높음

DDW2024에서 셀트리온의 파트너사 Rani therapeutics는 경구용 스텔라라 RT-111를 단회투여한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하였다. 임상에서 0.50mg 및 0.75mg Rani-Phill을 공복에 경구 복용할 경우 0.5mg SC투여 대비 약 84%의 높은 생체이용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 SAE는 발견되지 않았다. 제형변경의 핵심은 PK/PD data로 임상 1상의 결과만으로 경구용 휴미라/스텔라라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함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경구용 스텔라라 경쟁자;
JNJ-2113
JNJ는 최소 매출 \$5bn 기대

단, 경구용 스텔라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다. 현재 JNJ가 경구용 인터루킨 저해제 JNJ-2113을 개발하고 있다. JNJ-2113은 건선 환자에서 효능을 평가하는 Phase 2b FRONTIER 1 임상에서 52주차에 약 76.2%로 높은 PASI75를 달성하여 임상 성공을 알렸다. 현재 JNJ는 pivotal Phase 3 ICONIC 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셀트리온은 강력한 경쟁자가 있는 경구용 스텔라라 대신 경구용 휴미라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JNJ는 JNJ-2113를 향후 \$5bn 이상의 매출이 기대되는 main 약물로 꼽고 있다. 휴미라는 스텔라라 보다 더욱 광범위한 자가면역질환에 쓰이는 약물로 개발에 성공할 경우 \$5bn 이상의 높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만성투여가 필요한 자가면역질환의 특성상 투약편의성이 대폭 개선된 경구용 휴미라는 환자 및 의료진에게 큰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3 Rani-Phill 임상 1상 결과



자료: DDW2024,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 주주가치제고 계획 발표

현금 배당 + 자사주 소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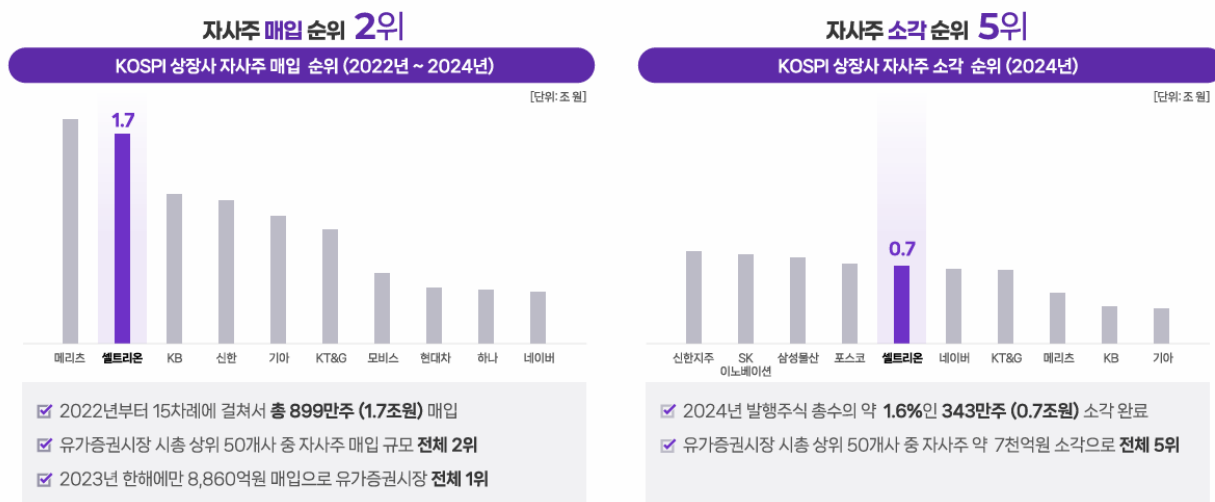
주주가치제고:
현금배당 + 자사주 소각

셀트리온의 주주가치제고 방법은 현금배당 및 자사주 소각으로 총 2가지이다. 먼저 셀트리온은 EBITDA가 발생할 경우 40%는 제품개발, 30%는 주주 현금 배당, 30%는 cash reserve할 것으로 밝혔다.

연내 약 5,500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 예정

추가로 셀트리온은 약 5,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연내 진행할 계획으로 밝혔다. 셀트리온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총 1.7조원 규모를 매입하였으며 이는 코스피 시총 상위 50개사 중 전체 2위에 달한다. 이미 2024년 0.7조원을 소각하였으며 추가로 연 내 보유한 자사주 중 25%를 소각할 계획이다. 현재 셀트리온이 보유한 자사주 규모는 약 2.2조원으로 그 중 25%인 약 5,500억원이 소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4 셀트리온 자사주 매입 및 소각 현황



자료: 셀트리온,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Q&A 정리

Q1. 2023년에는 경쟁 CDMO 업체들 증설에 따른 오버캐파 우려 때문에 CDMO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밝혔다. 어떠한 계기로 변화가 있었는가?

A1. 2023년부터 여러 회사가 셀트리온에게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와 동시에 생물 보안법 입법화 이슈가 대두되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Q2. 허셉틴SC 개발하는 것으로 안다. 할로자임 관련 특허문제는 없는지? 추가 시 밀러 개발 및 경쟁사 개발 가능성은?

A2. 할로자임의 기술은 enzyme 기반이기 때문에 어려운 기술이 아니다. 따라서 셀트리온은 자체 제품 개발 용도로 이미 히알루로니다아제 개발을 완료하였다. 2027년 할로자임의 물질특허가 종료되면 출시에 문제가 없게끔 특허 준비를 완료해놓았다. 자체 제품 개발 용도로 개발하였으나 로열티를 지불하고 기술을 사용하겠다는 파트너가 있다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의향도 있다.

일반적으로 약은 특허만료 이전에 개량된 약물을 출시한다. 그러나 할로자임의 기술은 약물 투여를 도와주는 역할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개량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

Q3. 현재 셀트리온은 신약개발회사로 거듭나고 있는데 CDMO 사업을 영위할 경우 자회사 설립만으로 이해상충이 해소되는가?

A3. 충분히 고려할만한 부분이다. 기술보안에 대한 안전장치로 철저한 분리경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Q4. 셀트리온제약과 합병할 계획이 있는가?

A4. 셀트리온 주주들이 동의할만한 밸류에이션이 생기기 전까지는 합병이슈를 거론하지 않을 것이다. 내년 초 셀트리온제약의 밸류에이션이 증가될 수 있는 손익구조를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Q5. 자사주를 활용한 M&A 여부?

A5. 현재 셀트리온이 매우 저평가되어있는 상황이라 대규모 M&A를 진행하려면 셀트리온이 제대로 평가받는 시점까지 기다려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셀트리온 068270]

재무상태표 (십억원)						손익계산서 (십억원)					
	2021	2022	2023	2024F	2025F		2021	2022	2023	2024F	2025F
유동자산	3,074	2,930	5,009	6,820	9,542	매출액	1,893	2,284	2,176	3,505	4,440
현금 및 현금성자산	1,188	551	565	825	2,480	매출원가	806	1,251	1,125	1,807	1,615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122	1,635	948	1,388	1,652	매출총이익	1,088	1,033	1,052	1,698	2,825
재고자산	578	616	3,041	4,136	4,921	판매비 및 관리비	343	385	400	1,107	1,140
기타	186	127	455	470	489	영업이익	744	647	651	591	1,684
비유동자산	2,600	2,962	14,908	14,116	13,216	(EBITDA)	958	874	897	1,760	2,979
관계기업투자등	89	118	134	133	138	금융손익	31	24	21	17	0
유형자산	950	1,007	1,215	1,296	1,420	이자비용	8	8	10	19	0
무형자산	1,492	1,622	13,336	12,426	11,386	관계기업등 투자손익	-5	7	-13	-4	0
자산총계	5,674	5,892	19,918	20,936	22,758	기타영업외손익	-32	-52	11	86	127
유동부채	1,210	1,294	2,471	3,036	3,174	세전계속사업이익	739	626	671	690	1,81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309	371	477	673	801	계속사업법인세비용	153	95	131	81	181
단기금융부채	570	665	1,783	2,091	2,091	계속사업이익	586	531	540	609	1,630
기타유동부채	331	258	211	271	282	중단사업이익	10	11	0	0	0
비유동부채	413	323	321	292	300	당기순이익	596	543	540	609	1,630
장기금융부채	175	154	107	90	90	지배주주	579	538	536	658	1,761
기타비유동부채	239	169	214	203	211	총포괄이익	614	566	540	609	1,630
부채총계	1,624	1,617	2,792	3,328	3,474	매출총이익률 (%)	57.4	45.2	48.3	48.4	63.6
지배주주지분	3,917	4,139	16,981	17,467	19,142	영업이익률 (%)	39.3	28.3	29.9	16.9	37.9
자본금	138	141	220	220	220	EBITDA마진률 (%)	50.6	38.2	41.2	50.2	67.1
자본잉여금	856	871	14,790	14,800	14,800	당기순이익률 (%)	31.5	23.8	24.8	17.4	36.7
이익잉여금	3,052	3,485	3,964	4,158	5,833	ROA (%)	10.8	9.3	4.2	3.2	8.1
비지배주주지분(연결)	133	135	145	142	142	ROE (%)	16.0	13.4	5.1	3.8	9.6
자본총계	4,050	4,274	17,126	17,609	19,284	ROIC (%)	17.1	14.1	4.7	2.8	8.1

현금흐름표 (십억원)						주요투자지표 (원, 배)					
	2021	2022	2023	2024F	2025F		2021	2022	2023	2024F	2025F
영업활동 현금흐름	911	1	537	151	2,143	투자지표 (x)					
당기순이익(손실)	596	543	540	609	1,630	P/E	48.1	43.7	81.7	58.1	21.7
비현금수익비용가감	452	423	373	835	1,434	P/B	6.7	5.5	2.6	2.2	2.0
유형자산감가상각비	62	65	64	83	92	P/S	14.7	10.3	20.4	11.1	8.7
무형자산상각비	152	162	182	1,087	1,203	EV/EBITDA	28.0	26.1	50.7	22.6	12.8
기타현금수익비용	238	197	127	-400	139	P/CF	26.6	24.3	48.6	26.8	12.7
영업활동 자산부채변동	0	-748	-221	-1,293	-921	배당수익률 (%)	0.4	0.2	0.2	0.2	0.2
매출채권 감소(증가)	109	-683	-296	-401	-263	성장성 (%)					
재고자산 감소(증가)	-268	-215	57	-1,092	-785	매출액	2.4	20.6	-4.7	61.0	26.7
매입채무 증가(감소)	44	54	-2	131	128	영업이익	3.6	-13.0	0.7	-9.3	185.1
기타자산 부채변동	114	96	20	69	-1	세전이익	12.4	-15.2	7.2	2.8	162.4
투자활동 현금	-356	-297	-139	-359	-402	당기순이익	13.3	-8.9	-0.5	12.8	167.7
유형자산처분(취득)	-63	-111	-210	-174	-216	EPS	11.7	-7.3	-32.9	24.1	167.7
무형자산 감소(증가)	-230	-201	-141	-162	-163	안정성 (%)					
투자자산 감소(증가)	-54	-34	-183	15	-13	부채비율	40.1	37.8	16.3	18.9	18.0
기타투자활동	-8	49	395	-38	-11	유동비율	254.0	226.4	202.8	224.7	300.6
재무활동 현금	-69	-350	-385	469	-86	순차입금/자기자본(x)	-12.8	4.8	6.6	6.7	-2.5
차입금의 증가(감소)	-135	-58	-90	-21	0	영업이익/금융비용(x)	90.4	86.2	67.4	30.6	n/a
자본의 증가(감소)	-18	-373	-963	490	-86	총차입금 (십억원)	744	819	1,890	2,180	2,180
배당금의 지급	0	102	52	87	86	순차입금 (십억원)	-518	206	1,131	1,178	-484
기타재무활동	83	81	668	0	0	주당지표(원)					
현금의 증가	504	-637	13	260	1,655	EPS	3,964	3,676	2,465	3,059	8,191
기초현금	684	1,188	551	565	825	BPS	28,397	29,398	77,083	80,105	87,788
기말현금	1,188	551	565	825	2,480	SPS	12,952	15,610	9,880	16,073	20,361
NOPLAT	590	549	524	521	1,516	CFPS	7,166	6,602	4,143	6,624	14,052
FCF	691	-79	552	-208	1,741	DPS	727	399	400	400	400

자료: 셀트리온,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주: K-IFRS 연결기준

셀트리온 (068270)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추이

제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과리율(%)		(원)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대비		
2023-03-13	담당자변경					
2023-03-13	매수	205,000	-21.5	12.9	200,000	
2023-04-12	매수	205,000	-21.2	12.9	200,000	
2023-06-09	매수	205,000	-22.3	12.9	200,000	
2023-08-16	매수	205,000	-21.1	12.9	200,000	
2024-01-22	매수	230,000	-20.5	-15.4	200,000	
2024-06-12	매수	270,000	-29.2	-22.6	200,000	
2024-07-11	매수	270,000	-28.2	-22.6	200,000	
2024-08-08	매수	270,000	-28.2	-23.9	200,000	
2024-11-11	매수	260,000	-34.2	-32.0	200,000	
2024-11-28	매수	260,000			200,000	

투자의견 및 적응기준 (향후 12개월간 주가 등락 기준)

기업		산업
매수	+10% 이상의 투자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비중확대
중립	-10% ~ +10% 이내의 등락이 예상되는 경우	중립
매도	-10% 이하의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비중축소

업종별 투자의견은 해당업종 투자비중에 대한 의견

투자의견 비율

기준일 2024.09.30

매수	중립	매도
98.7%	1.3%	0.0%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